



大學生의 讀書指導

—그 問題點과 方向—

崔 昌 均
中央大學校圖書館

1.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독서지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도서관학과에서조차도 전부 실시하고 있지 않다.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초중등과정에서도 극히 최근에 그 실시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국어과의 읽기지도에서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전국적이 아니다. 또 실시한다고 해도 전문교사의 문제가 있다.

대학생의 독서지도는 초중등과정에서 어떠한 내용과 방법의 독서지도가 실시되었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는 것인데 초중등과정에서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금 대학생의 독서지도를 운위하려면 독서지도의 기초부터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생과 도서관학과의 독서지도를 동일시킬 수도 없다. 초중등과정에 독서지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도서관학과 사서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기는 독서지도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담당 교사들의 전문과목에 따른 독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서교사나 전문독서지도 교사는 교양이나 기능독서지도, 도서관 및 도서관자로 이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대학생 또는 대학생수준의 청년에게 독서지도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실시해야 하며, 그 문제는 무엇인가를 언급해 보려고 한다.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초중등과정에서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이며, 또한 일반대학생이나 도서관학과 또는 교직과 학생에게 공통되는 가장 일반적인 입장에서 언급하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독서지도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없고 독서지도를 강의 받은 바도 없으며, 다만 관심을 가지

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소의 관심을 문제의 제기로 삼아 피력하고자 한다.

2. 現代讀書指導의 目的

독서지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독서지도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과거의 독서지도는 문자지도, 독해지도, 읽기지도였고 그 목적은 수신적 교양에 있었다. 이러한 일차적 목표는 지금도 변함없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읽을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교교육이 이제까지의 모든 지식내용의 전부를 가르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쳤다고 하여도 곧 고전화되는 지식발전의 추세에 의하여 그 비중이 낮아져가고 있는 형편에서는 학교교육 자체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응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70년대초의 실험대학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실험대학 실시의 궁극적 목표는 강의실 탈피에 의한 자율학습기회의 확대이며, 자율학습기회의 확대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의 훈련에 의하여 변천하는 지식과 사회에의 적응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전공과목을 줄이고 기초교양과목을 확장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도서관적으로 말하면 어학의 충실에 의하여 도서관자료를 창조적으로 이용할 줄 알게 하는 도서 및 도서관이용법의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대학만이 이러한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실은 이수학점만 줄인 결과가 되었다. 지정도서나 과제도서에 의한 자율학습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대학에서 독서지도와 도서관이용법——논문 작성법을 동시에 강의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것이 개강되더라도 독서지도와 도서관이용법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즉 대학에서의 독서지도는 생애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기초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생에 걸친 자율학습방법의 교육이 그 근

본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에 있어서의 독서지도의 목적은 평생의 자기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讀書의 概念과 目的論의 問題

독서지도를 강의함에 있어서 독서의 개념이나 목적론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개념과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였느냐에 따라 독서지도의 효과가 결정되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은 것이다. 독서를 책 읽기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독서의 목적을 교양향상이나 자아발전이라는 수신적 필요에만 둘 때에 현대가 요구하는 독서지도의 효과는 거둘 수가 없다. 읽을거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속독지도가 필요하다는니, 좋은 읽을거리를 선별하는 기능의 교육 즉, 기능독서지도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여 독서지도를 읽기 지도로 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어과의 읽기지도로 출발하는 문학작품이나 고전의 이해에 의한 생활지도 및 정서교육이 독서지도의 영역이 아님을 절대로 아니다. 특히 청년기에 있어서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심각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때에 이러한 독서를 통한 자아개념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러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현대의 독서지도목적에 어긋날 공산이 큰 것이다.

독서란 책을 읽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기초이나, 읽을거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찾고, 읽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재창조하는 논문작성적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즉 독서의 개념을 문화전승과 창조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의 자기이해를 위한 방향으로 독서와 독서지도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즉 도서관자로 활용이라는 입장에서 독서지도의 목적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적 독서의 목적인 자아실현과 심리적 자유의 획득에 의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상의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다.

4. 讀書指導領域과 方法의 問題

위에서 언급한 독서와 독서지도의 목적에 입각해서 독서지도의 영역을 생각하면 도서관 및 도서관자로 활용법과 전통적인 읽기지도, 독서기능지도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독서지도를 담당할 학생을 위해서는 지도의 방법문제나 피교육자의 연령별, 학력별 특정에 의한, 심리적 기초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한 영역을 편의상 구분하였지만 도서관 및 도서관자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어떠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렇다할 도서관적 또는 도서관학적 노력이나 연구가 없다. 도서관교육론이 우리 도서관학계에 거의 없으며, 이것이 부진하면 도서관 존재의 의미조

차도 희미할 염려가 있다. 도서관이 직간접의 사회적 교육기관이기 위해서는 도서관교육론이 곧 독서지도론이어야 한다.

교육한다든지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 봉사정신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독서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독서에 관한 연구와 소개가 교육학계에서 먼저 일어났으며, 그 결과 각종 학교의 독서지도가 읽기지도로 그 영역이 좁아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독서와 독서지도에 관한 문헌들이 교육과학적 토대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그 영역이 도서관자료활용이라는 거시적인 것이 아니고, 도서관학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국 문헌의 국내 실험이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서지도는 이러한 문헌에 의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도의 방법이나 원리는 그 지도하는 목표와 내용(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반적인 원리는 공통적일 수 있다. 독서의 주 대상은 책이며 책에 대한 이해는 그 역사, 사회문화적 의미, 구성요소와 특질, 평가방법등의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이 도서관적인 상식이며, 어느 책이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제들은 각각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나 하는 것이 그 이해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독서지도 내지 독서과학은 학문의 학문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어떻게 배울 것이냐하는 학문의 입문지도가 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용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지도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지도하는 방법은 교육과학의 일반원리에 따라야겠지만 도서관적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青年期의 特徵과 讀書指導의 方向

청년기의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지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징은 심리적특징중에서도 지적육구의 특징일 것이다.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이다. 이 과도기에서 청년은 새로운 자아를 인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우월감과 성인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모든 사고와 상상력이 출발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른바 과도기적인 불안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존재를 새로 인식함에 따라 청년다운 논리성, 추상성, 사색성, 상상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개념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학문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기의 독서지도는 자아개념의 확립을 위한 『觀』의 문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지도인 것이다. 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며,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석과 철학을 결정하는 기본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앞서 언급한 도서관 자료활용법도 도서관자료의 사회문화적 의미의 차원에서부터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개인의 사회문화적 의미의 파악이 자아개념의 요소가 될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방법의 문제보다는 목적론인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목적과 목표이해의 결핍이 모든 교육을 기능화시키고 따라서 기능인간화를 촉진하였다. 현대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세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본트와 파블로프를 중심으로하는 과학적——조건반사적——기계적인 행동주의적 인간관이고 둘째는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잠재의식적 인간관이다. 이 두 관점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며 인간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조건에 인간변화(행동)의 근본을 두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의 독서지도는 기능독서지도가 되며. 그 지도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 셋째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으로서 성 어거스틴에서 시작한 다소 종교적인 관점이다. 이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잠재의식이나 외부적 자극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상, 소망, 자아관, 가치관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정밀기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영적——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어느 하나만이 진리일 수는 없으나 자아형성기의 청년독서지도는 세번째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각에 의한 자기실현을 최상의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I. 讀書의 意義

1. 讀書의 概念
2. 讀書資料의 展望과 讀書概念의 變遷
3. 讀書의 社會文化的 機能과 目的
 - 1) 自我發見과 經驗으로서의 讀書
 - 2) 社會構成의 原理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讀書
 - 3) 社會文化發展의 原理와 讀書
 - 4)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讀書의 意義(平生教育)
 - 5) 現代圖書館의 意義와 讀書의 意義

II. 讀書에 있어서의 問題意識의 重要性

1. 問題意識이란 무엇인가?
2. 人格形成과 想像力의 重要性
3. 偏見과 經驗의 受容과 開放態度
4. 人間의 普遍的 問題意識
5. 特殊問題意識으로서의 學問과 文化의 本質
6. 青年文化의 現在와 未來(本質)

III.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 (1)

1. 各讀書資料의 構造와 特徵
2. 論文과 文章構造의 理解
3. 學問——知識의 一般的인 體系와 圖書館資料의 分類體系

4. 讀書資料 選擇과 評價의 原理

5. 機能讀書의 原理와 方法

6. 各種讀書方法論의 長短點

7. 讀書資料의 體系的 蒐集方法

8. 讀書카드의 作成法

IV.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 (2)

1. 一般的 古典의 意義와 그 讀書의 觀點
2. 特殊主題 古典의 意義와 그 讀書의 觀點
3. 神話·傳說·說話·民譚·童話·寓話·俗談·수수께끼의 意義와 그 觀點——未分化의 源流
4. 人間理解와 心理學의 意義
5. 歷史·哲學의 學問上 位置
6. 社會科學의 意義
7. 自然科學의 意義
8. 人間의 綜合的 理解로서의 藝術과 文學作品의 意義

V. 讀書의 結果를 어떻게 活用할까?

1. 日記·自叙傳의 意義와 自我實現
2. 効果의인 自己表現을 위한 知識活用의 커뮤니케이션 方法
3. 効果의인 知識活用으로서의 論文作成法
4. 自己經驗의 傳達과 知識記憶으로서의 資料單元 構成과 活用方法
5. 人間疏外意識의 克服을 위한 自己評價의 方法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대강의 기본입장과 지도의 요목을 소개하였다. 이상적으로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강의한 다기보다는 작자가 도서관자료를 스스로 이용함으로써 독서지도의 목적을 이루도록 용의주도한 문헌소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초·중등과정에서 문헌이용법을 익혔다면 짧은 시간내에 초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도서관자료이용법지도 자체가 독서지도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나, 시대적 요청인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교육론의 차원에서 독서지도문제를 거국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우선 평생의 소견을 두서없이 적어놓고 보니 송구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고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는 없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여 청년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하게 하며, 스스로 평생동안 독서를 통해 자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물음앞에 쉽게, 또 자신있게 내놓을만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생에게 독서지도나 도서관 이용법을 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물음에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기회에 소신의 일단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도서관계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한다.